

# 인권의 경계\*

## - 네팔 사회와 한국사회의 단상 -

이 권 희\*\*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 (세계인권선언 제 1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나라나 영역이 독립국이든 신탁통치지역이든, 비자치지역이든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권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든, 그 나라나 영역의 정치적, 사법적,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행하여져서는 아니된다.”(세계인권선언 제2조)

개인이 살고 있는 사회는 한 개인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사회가 아니라 사회 각 구성원이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시간과 역사의 산물이다. 이런 사회들도 각 나라의 구성원들 각각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 민족, 종교, 역사적 배경 등으로 다양하고 다르게 형성되어 있다. 근대 이전 사회는 개인이 살고 있는 공간에서 평생 동안 거의 벗어나지 않았지만 근·현대는 교통과 통신 등 기술의 발달로 전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집에서 TV를 켜면 저 멀리 아프리카의 소식을 들을 수 있고, 인터넷에 들어가면 전 세계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다. 또한 이제는 한 국가의 문제가 한 국가의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파급효과가

---

\* 투고일자 : 2012. 6. 7    심사일자 : 2012. 6. 13    게재확정일자 : 2012.

\*\*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간사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다. 유럽발 경제위기, 미국 경제쇼크,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 어떤 문제는 자국 내에서 그쳐지는 것도 있겠지만 때로 어떤 문제들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다.

이렇게 모든 사회가 연결되어 있는 현대에서, 인권의 문제는 과연 모든 나라가 연결되어 있을까? 경제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 이면에 가장 기초가 되고, 근본이 되는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왜 모든 세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잘 인식하지 못하는 걸까? 오히려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는 각 나라의 특수성이나 상대성에 의존할 때가 많다. 이 글을 쓰는 필자도 현장에서 인권의 문제를 눈으로 보고 느끼기 전에는 ‘인권의 보편성’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그러기에 짧은 글이지만 필자의 수년 동안의 삶의 현장이었던 ‘네팔’이라는 나라의 사회를 한국사회와 비교하며 인권의 보편성과 인권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실현되기 위한 여러 사회적인 장치 등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

## I. 네팔 사회의 차별의 시작, 카스트 제도

인권의 감수성을 위해서 필자는, 개인이 한 사회, 한 공동체에서만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을 때 다양한 사회를 경험해 보라고 권하고 싶다. 왜냐하면 인권이 실현되는 현장에는 그 사회의 발전 정도(발전이라는 것이 단순한 경제적인 발전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민주화의 정도, 시민들의 의식, 그에 따른 제도적인 보완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이다.

모두가 한 번씩은 들어봤을 용어가 하나 있다. 바로 ‘카스트 제도’ 라는 단어이다.

카스트 제도는 “세계의 수많은 전근대 사회에서 나타났던 문화·사회적 현상으로, 일정 신분계층집단의 지위를 자손 대대로 세습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주로 인도의 신분 계층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이 카스트 용어의 유래는 인도와의 항해 무역을 하던 포르투갈인들과 스페인인들이 사용했던 ‘카스타(포르투갈어: Casta)’라는 용어로 부터 유래하였는데, 그 용어는 ‘순결한’ 혹은 ‘순수한’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한다.<sup>1)</sup>

사실 카스트 제도의 원래 목적은 ‘계급’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업’에 목적이 있었다. 다시 말해 성직자, 무사, 경찰관 등 각각의 일을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게끔 하기 위한 것이었고, 같은 카스트인 사람들끼리 결혼하게 한 것도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결혼 하였을 때 서로 간의 이해를 바탕으로 더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sup>2)</sup>

하지만 이 카스트 제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간을 신이 주신 계급에 따라 규정되어 진다는 의미로 변질되었고, 이것이 제도화되어 성문, 불문법으로 사람들을 나누기 시작했다. 1963년에 공식적으로 법조문에서 폐기되기까지 이 카스트제도는 인간을 ‘합법적으로’ 다른 인간으로 나누었던 것이다. 또한 법적으로는 폐기되었을지 몰라도 21세기를 살아가는 현재의 사람들의 생활과 일상 속에는 아직 이 카스트 제도가 살아 숨쉬고 있다. 많이 완화되었다고 하지만 다른 카스트끼리의 결혼은 여전히 사회의 금기시되는 사안이고, 높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이 낮은 카스트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을 하면 집안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심지어 집안에서 쫓겨나는 경우가 암암리에 존재한다.

카스트 제도에 대한 기억 중에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카스트에 있는 사람들의 ‘파업’이었다. 이것은 뒤에 다룰 ‘시민불복종’과도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 정리를 하자면 이렇다.

네팔은 카스트 제도로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환경정리를 하시는 분이 공무직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일종의 외주 사업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는 카스트에게 카트만두의 쓰레기 처리를 맡긴다. 실제로 쓰레기 처리는 새벽녘에 이루어지며, 쓰레기 처리 시설이 미비한 현지의 사정에 따라 태우거나 강에 무단 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다 할 위생복장도 갖추지 못한 채 거의 벌거벗은 몸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낮은 카스트의 사람들에게 현지에 많은 사람들은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그런데 이 낮은 카스트의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처우에 대한 불만으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일종의 파업을 벌여버렸다. 그들의 요구는 “낮게 책정된 임금의 인상, 그들의 대한 존중” 등이었고, 순식간에 네팔 시내를 쓰레기 더미로 악취와 불결한 거리로 돌변하고 말았다. 네팔 정부는 일주일 만에 손을 들고 항복하였고, 그들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

1) 위키백과/ 출처 : <http://ko.wikipedia.org/wiki/%EC%B9%B4%EC%8A%A4%ED%8A%B8>.

2) 위키백과/ 같은 본문에서 인용.

용하여 임금인상과 더불어 ‘인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파업이 종료되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임금협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카스트에 대한 불쾌감과 굴욕이 폭발한 사건이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에서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조에서는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이 채택되고 선언된 지 6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인권의 존중’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된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바뀌어져 간다. 그러면서 법과 제도가 바뀌고, 바뀐 법과 제도가 사람들의 인식을 다시 바꾼다. 하지만 여전히 그들의 오랜 전통에 의해 그들의 가슴과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카스트’라는 괴물은 여전히 그들의 주변에서 배회하며 사람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

한국사회로 잠시 눈을 돌려보자. 현대에 한국사회에서 ‘카스트’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두 서로 평등한 존재일까? 우리네 문화 속에도 여전히 ‘환경미화원’과 같은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무시와 환멸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최근에 어려워진 경제사정 탓에 안정적인 공무원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라고는 하지만 정규직인 공무원이 아니라 학교나 기타 시설에서 청소노동자들은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서 차별과 사람들의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다.

어디 그 뿐인가? 제도적으로는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국사회에 경제적인 약자와 강자는 현저하게 그 차이가 두드러진다. 특히 최근에는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더욱더 사회가 고착화되어 부가 대물림되고 빈곤이 대물림되는 모습이 역력하다. 2010년 9월 문화일보에서 ‘한국사회는 공정한가?’라는 제목으로 전국 19세 남녀 1,000명에게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무려 69.6%가 불공정하다고 대답했고<sup>3)</sup>, 2012년 초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3) 문화일보 2010년 9월17일 기사. ‘한국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91701070123029002>.

오는 2020년에도 한국사회는 공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sup>4)</sup> 한 사회가 구성원들의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열린 사회구조가 되는 것이 진정 인권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한국사회도 아직 완전한 ‘인권실현’의 현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지표들을 볼 때 후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에 관계없이,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이 무엇이냐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인권’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진정 성숙한 사회일 것이다.

## II. 네팔 사회의 시민불복종, 번다(Bunda)

번다 라는 뜻은 영어로 ‘Close’ 즉 ‘닫다’라는 의미이다. 이 ‘번다’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되어진다. 가게 문이 닫혀있을 때도 이 단어를 쓰고, 교통체증이나 사고가 나서 갈 수 없을 때도 이 단어를 쓴다. 파업이나 시위를 뜻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번다’라는 단어를 다 설명 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 ‘번다’라는 단어가 시민불복종 이라는 시민이 국가와 정부를 상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요구 할 때도 쓰여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

사실 이 ‘번다’라고 하는 상황은 한국사회에서 상상하기가 정말이지 쉽지가 않다. ‘번다’가 걸려서 엠블런스나 UN차량 및 정부 관련된 차량만 다닐 수가 있고, 그 외 차량은 다닐 수가 없다고 한다면 과연 상상이 가는가? 모든 가게들이 ‘번다’ 기간에는 문을 열 수 없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상상이 가겠는가? 당시에 필자도 사회 전체 시스템을 All-Stop 시킨다는 것이 정말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시민들은 다양한 이슈들로 번다를 걸었고, 자신의 요구를 표현했다. 번다에 관해서는 정말 수많은 일화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기억이 나는 몇 가지 중에 하나는 한 택시기사 한 분의 강도 살인 사건이었다.

4) 기획재정부 ‘2020년 한국사회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미래연구’ 보고서 ‘한국사회는 2020년에 한국사회는 공정하지 않을 것.’

<http://www.mosf.go.kr/news/news01.jsp?actionType=view&runno=4012191>.

야간에 택시를 운행하시던 한 기사 한분께서 불의의 강도를 만나 돌아가셨는데 택시 회사에서 굉장히 적은 합의금을 제시한 것에 대한 불만의 표시로 카트만두에 주요 도로에 택시를 세워 길을 막은 것이다. 순식간에 이 사건에 수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시민들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택시회사는 유족의 요청대로 합의금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다. 당시에 택시기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는 비판도 있었으나 많은 시민들은 사회 사회에서 ‘약자’인 택시기사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사건은 ‘부통령의 네팔어 폐지 발언’이다. 이 사건은 부통령이 모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네팔어 교육을 하지 말고 인도어를 모든 학교에서 가르쳐야 한다’는 발언이 문제가 되었다. 네팔과 굉장히 근접해 있는 강대국인 인도식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에 발언이었는데 인터뷰가 나가고 나서 후폭풍이 상당했다. 각 공립학교들이 동맹휴업을 하고 부통령의 ‘사대주의적’인 발언에 대한 사과와 퇴진을 요구했다. 부통령의 발언에 대한 항의로 거리에서 타이어를 태우거나 짚으로 만든 부통령의 형상을 태우는 것을 보는 것도 당시에는 충격이었다. 결국 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과함으로 사건은 일단락되었으나 네팔 시민들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이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다.

국가가 시민들에게 악한 것을 강제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것. 우리는 그것을 시민불복종 이라고 부른다. 악한 것을 강제시키는 것을 거부하는 소극적인 의미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시민들이 자신의 권리를 국가 혹은 상급 기관에 요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권리이다. 네팔 사람들의 연대는 참으로 놀라웠다. 무엇보다 나를 놀라게 한 것은 내가 만난 네팔 사람들의 인식이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만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에 나는 기회가 닿을 때 마다 이 ‘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물었다. 당시 40대 쯤인 ‘인드라 타망’씨는 자주 ‘번다’가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네팔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번다’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번다’를 지지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자신들의 처지를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직장 동료였던 27세 “후마 구룽”씨는 “누구든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번다’라고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누구든지 그러한 사회적인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마치 1차 세계대전 때 장교로 복무하고, 나찌를 지지했다가 돌아서서 오랜 시간 감옥에서 고초를 겪었던 ‘마르틴 니컬러’ 목사님의 시의 내용과 같지 않은가!

그들이 왔다.

맨 먼저 그들은 공산주의자를 잡으러 왔지만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노동조합원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노동조합원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인을 잡으러 왔지만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므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나를 잡으러 왔지만  
나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sup>5)</sup>

네팔 사회에서 ‘번다’라고 하는 독특한 문화는 어쩌면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그들만의 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데이비드 소로는 일찍이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에서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는 먼저 정의에 대한 존경심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은가? 불의가 당신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불의를 행하는 하수인이 되라고 요구한다면, 분명히 말하는데, 그 법을 어겨라.”<sup>6)</sup>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양심의 명령에 따라 악법에 복종하지 않겠다는 사람, 그래서 악법이 조장하는 불법에 도전해 사회 양심을 일깨우기 위해 감옥의 형벌조차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사람은 실제 어느 누구보다 더 가장 법을 존경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sup>7)</sup>

---

5) 미셸린 이샤이 지음, 조효제 옮김, 세계인권사상사, 길, 2005.

6) 헨리 데이비드 소로 지음, 강승영 옮김, 시민의 불복종, 이레, 1999.

7) 류은숙, 인권을 외치다, 푸르쉴, 2009에서 재인용.

그렇다면 한국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떠한 무기가 있을까? 네팔에 ‘번다’라고 하는 신묘막측한, 도저히 우리네 상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국사회를 떠올려 보았다. 선배 한 분께 네팔의 독특한 문화인 ‘번다’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1987년 6월이 그랬다며 상념에 젖어 예전 얘기를 해 주셨던 기억이 난다.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네팔에서와 같이 극단적으로 사회 시스템이 멈추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사회에도 촛불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있다. 효순이와 미순이가 무참하게 죽었을 때 우리는 분노했다. 국민과의 소통을 전혀 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를 위해서도 촛불을 들었다. 후에도 여러 가지 우리가 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어김없이 우리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서야만 했다. 특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서 당시 광화문 광장에 모인 300만명의 인파 속에 들려진 촛불의 힘을 기억한다! 그것은 정말 새로운 세대를 밝히는 거대한 빛이었다. 그 촛불 속에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었고, 모두의 연대 속에서 인권의 진정한 실현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는 ‘희망버스’를 기억한다. 2011년 여름, 그 타는 듯한 여름에 부산 영도 앞바다에 모인 사람들. 한진중공업에 정리해고에 대항하여 85호 크레인 꼭대기에서 309일 동안 사측과 싸운 김진숙과 동료들 그리고 그녀와 그녀가 상징하는 시대정신을 지지한 시민들. 이러한 연대가 한국사회를 한층 더 성숙하게 하고,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한다. 연대(連帶)라고 한자어는 ‘잇닿아 있다’의 ‘연’자와 ‘따’ 대가 함께 합쳐진 글자이다. 이것의 의미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짐’ 혹은 ‘한 덩어리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이라는 뜻이다. 인권만큼 사람들과의 연대가 필수적인 것이 있겠는가? 인류의 역사가 한 개인의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인권은 연대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구체화 되고, 실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네팔에서 보았던 시민불복종이 한국사회에서 동일하게 보여지는 이유이다.

### Ⅲ. 친구의 또 다른 이름, 이주노동자

나는 한국에 들어온 네팔 친구들이 여럿 있다. 각자의 일이 바쁜 탓에 자주 보지는 못하지만 연락을 하거나 받게 되면 늘 반갑고 마음이 간다. 친구들은 각자의 이름이 있다. 인도의 신 이름이기도 한 비슈누, 네팔 히말라야에 유명한 포터인 쉘과 출신 쉬링,



그 외에도 수딕, 나인, 크리슈나 등등 한 집에 아들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그들 고유의 이름으로 불린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이름 하나가 늘었다. 이주노동자, 어느 때부터 사람들은 이런 이름으로 그들을 부르기 시작했다.

일상에서 만나는 이주노동자 친구들은 평범한 사람들이다. 일이 힘들다고 얘기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어서 힘들다고 얘기하고, 일 하는데 있어서 실수하고 그래서 혹시나 관리 감독하는 분에게 혼날 때 두려워하고, 만나면 자기 아내나 아이들 사진을 보여주며 얘기하기 바쁘고... 한국에서 생활이 고되기는 하지만 일만 할 수 있다면, 계속 돈을 벌수만 있다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작년에 대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던 던라즈씨는 회사측에서 자신을 정신이상으로 취급하고 어떤 사건에 대해 범인으로 몰아세우고 끝내는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속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그의 유서에는 “한국정부와 모든 분들에게 나는 결백하고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회사가 나를 속였습니다. 나는 미치지 않았고 모든 것이 거짓”이라며 “반드시 진실을 밝혀달라”고 절절한 호소를 적혀져 있었다. 던라즈씨는 고향에 아내와 두 아이들이 있다.<sup>8)</sup>

또한 2010년에는 캄보디아 출신 노동자 한 분이 대구출입국관리소 직원을 피해 도주하다가 인근 야산에서 굴러 떨어져 중상을 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대구이주연대회의 기자회견문에서는 “법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정당화되고, 공무집행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 철저히 무시되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체류기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범죄자로 낙인찍고 권리를 무참히 짓밟는 현실의 개선 해야한다”고 밝혔다.<sup>9)</sup>

물론 이주노동자들의 문제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제도적인 보완도 시급한데다가 불법체류 문제도 어렵긴 마찬가지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한 단어로 낙인을 찍고 온갖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주노동자들을 대하는 것은 정말이지 동의할 수도 없고, 동의해서도 안 된다.

네팔에서 몇 년 살았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어쭙잖은 네팔어를 대화를 하며 네팔 이

8)출처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61982>.

9)출처 : 참세상, <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56223>.

주노동자들을 만나면서 그 중에 한 친구가 ‘자신은 13년 동안이나 한국에 있었는데 네 팔아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만난 게 당신이 처음이다’고 했다. 그레 네팔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모르는, 안다고 해도 에베레스트나 안나푸르나처럼 아름다운 히말라야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나 역시 그 와 크게 다르지 않았었다. 그 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씹쓸해 했던 기억이 난다. 우리 주변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주노동자들과 만나고 그들의 삶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국가인권위원회가 기획한 ‘십시일反’이라는 책에서는 만화로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그려놓은 작품들이 있다. 그 중에서도 ‘최호철’님의 ‘코리아환타지’라는 작품은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사라’라는 친구는 몽골에서 온 여성 이주노동자이다. 삼촌이 먼저 한국에 있었는데 어느날인가 연락이 두절되었고, 자신도 돈을 벌고 삼촌을 찾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 공장에서 사람이 다치는 것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한국말을 알아듣지 못해 욕을 먹고 심지어 육체적인 폭력에 시달리기도 한다. 하지만 사라가 어머니께 쓴 편지에는 일 잘하고 있고,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적어서 보낸다. 한국에 오기 전에 들은 급료보다 훨씬 적은 급료로 돈을 받고 있으면서도 말이다. 일하는 중에도 짬짬히 삼촌을 찾아 나서는데 어렵게 들은 삼촌의 소식은 ‘행방불명’이었다. 다른 동료 이주노동자를 위해 사장과 싸우고 며칠 뒤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해 정신착란 증세를 일으켰다는 것이 마지막 소식이었다. 작품의 끝 무렵에 삼촌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전화를 받으면서 상담소에 물건을 맡겨놨으니 찾아보라는 이야기로 작품은 끝이 나는데 그것은 정신이상자가 된 삼촌이 고향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 사 놓은 듯 한 여아용 작은 운동화와 여성용 구두, 짚어대는 강아지 장난감 이었다.

또한 작품 속에는 삼촌을 찾는 과정에서도 다른 이야기들이 중간 중간에 등장하는데, 출입국관리 직원이 불시 검문으로 온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산으로 도주하는 모습, 실제로 붙잡혀서 차에 태워 어디론가 끌고 가는 모습, 같은 여성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관리자의 아이를 임신하는 모습 등 이주노동자들의 불편한 삶의 현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sup>10)</sup>

10) 십시일反, 10인의 만화가가 꿈꾸는 차별없는 세상, 창비, 2003년.

책이 출간된 지 1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이주노동자들의 형편은 그렇게 나아지지 않는 것 같다. 대구에 있는 네팔 친구들을 만날 때 마다 다른 친구를 한 명씩 데리고 오면서 ‘이 친구 어디 일 할 데 없느냐’고 물어보거나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몰라서 전전긍긍 하다 있다고 얘기하고,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물어본다. 모두가 처음에 한국으로 올 때는 꿈에 부풀어 있었다. 그리고 다른 동남아시아 나라에 비해 한국이 월급이 많아서 같은 고된 일이라도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괜찮다고 한다. 하지만 그 얘기를 듣는 나는 마음이 불편하다. 현실을 타개하고 싶어서 다른 나라에 와서 열심히 일 하면서 과연 정당한 급여와 인격적인 대우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니 네팔 사람들처럼 한국 사람들도 ‘이주노동’을 할 때가 있었다. 저 멀리 독일이라는 나라에서 광부로, 간호사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 아메리카 드림을 쫓아 미국으로 간 사람들이 있었다. 가족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혼자 간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기약 할 수 없는 길을 나서기도 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이 하기 싫은 허드렛일을 하면서 꿈을 키우고, 더 나은 세상을 꿈꾸었던 한국 사람들이 분명 이 있었다. 먹고 살기에 바빠서 ‘인권’이라는 것에 눈을 돌릴 틈이 없었던 때였고, 인권이 ‘밥 먹여 주냐’며 무시하거나 체념하던 시간들도 분명 있었을 것이다. 어쩌면 이주노동자들이 지금 받는 설움과 고통을 우리도 이미 겪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인권의 경계에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들처럼 보이지만 우리 역시 그렇게 서성이고 있었다는 하는 참으로 역설이 아닌가 싶다.

#### IV. 글을 마무리하며

우리는 모두 인권의 경계에서 살아간다. 그것이 한국 사회가 되었든지 네팔 사회가 되었든지 제3의 사회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서 있는 곳은 사람들이 더 붙어 사는 사회일 것이다. 누구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든지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고, 지켜나가는 일은 개인의 생존뿐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일 인 것이다. 짧은 글 속에서 필자가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에서의 인권의 문제를 나누어 보았다. 인권의 문제가 내가 참여 할 수 없

는 큰 화두가 아니라 바로 삶의 현장, 옆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이 글에서 내가 언급한 것들 외에도 세상에는 다양한 ‘인권의 문제’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존재해야만 한다! 완벽한 세상은 없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리는 치열하게 우리네 삶에 던져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 고민하고 어떠한 방법이 우리의 인권을 올바르게 실현시켜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이다. 바라기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고,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고, 함께 우리의 권리를 지켜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함께 싸워나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글을 마무리한다.

“인간해방의 역사를 돌이켜보니 몇몇 결정적인 순간들이 눈 앞에 떠오른다. 노예제 폐지, 여성의 투표권 획득과 해방, 식민주의의 종식, 파시즘에 대한 승리, 아파르트헤이트의 종식, 베를린 장벽의 붕괴, 각각의 투쟁은 고유한 역사와 동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위대한 투쟁들 모두는 부정할 수 없는 권리, 인종, 계급, 국적을 초월하는 권리, 그리고 어떤 경제 사회적 정책보다 우선하는 권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는 외침을 그 핵심에 공통적으로 담고 있다. 이 투쟁들은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가 담고 있는 말에 영감을 주었고, 반대로 영감을 받기도 했다. 자유와 정의와 평등을 그 투쟁의 중심에 간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sup>11)</sup>

---

11) 아이린 칸, 우진하 옮김, 들리지 않는 진실, 바오밥, 2009.